

# 징소리(문순태)

※ <징소리(문순태)> 기본내용 파악

⇒ 이 작품은 1970년대의 우리 사회는 한편으로 눈부신 경제 성장이 나타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성장의 그늘 아래 속절없이 경쟁력을 잃어가는 부문이 두드러지는, **사회의 양극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기에 자리잡는다.** 따라서 **경제 성장에 방해되는 일체의 요소-농촌 진흥과 노동자 복지, 환경 보존 등은 아예 제기조차 될 수 없도록 경제의 불균형 상태가 심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심각한 분배의 불공정성과 부정 부패, 인권 유린, 황금 만능주의와 극단적인 이기주의 현상이 불거졌다. 한마디로 말해 1970년대는 전통 사회의 붕괴 현상이 눈에 띄게 나타난 시기라 하겠다. **작가 문순태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는 주로 **자신의 성장지인 전남 일대의 농촌을 주목하며, 전통적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으며 선량하나 무지한 민중들이 어떻게 희생되는가 하는 점을 끈질기게 추적한다.** 그는 이 소설에서 '칠복'으로 대표되는 농촌 빈민(도시의 빈민이기도 하다.)의 삶을 통해 고난의 길을 걸어야 했던 우리 농민의 전통적 정서인 한(恨)을 구체화하고 있다. 장성 방울재라는 수몰 지구를 배경으로, 거대한 댐 건설로 인해 실향민들이 겪는 고향 상실의 아픔을 구체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농촌에 불어닥친 산업화의 문제점을 그리고 있다. 주인공 허칠복은 댐 개발로 인해 칠복, 즉 고향, 아내, 자기 자신, 친구, 집, 재산, 직업 등을 모두 잃었다. 그 **상실의 '아픔'과 '몸부림'의 절규가 곧 '징소리'의 격렬한 음향적 청각적 인상으로 표상되었다.**

이 작품은 댐의 축조로 인한 마을 수몰 때문에 고향을 잃게 된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그린 소설이다. 이 작품에서 방울재 사람들은 댐 건설로 인한 피해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고향을 잃게 되고, 이들은 도회지에서 가난한 삶을 살거나 그러한 삶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게 된다. 작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근대화 속에서 행해진 지역 개발의 문제점과 농촌 빈민들의 고통스러운 삶의 모습을 드러낸다.**

※ 작품의 줄거리

칠복은 장성댐이 건설되면서 농토를 잃어버리고 아내마저 달아나자 어린 딸을 업고 무일푼으로 호수 가로 돌아온 이래, 징을 울려 낚시꾼들을 방해하다 매를 맞곤 하는 위인이다. 마을 사람들은 호수에 잠겨버린 방울재를 떠나 낚시꾼과 관광객 상대로 매운탕을 만들어 팔며 생계를 이어 가는 처지인데, 칠복이가 장사를 방해하니 그를 동정하면서도 쫓아낼 궁리만 한다. 원래 칠복이는 조실부모하고 외가에서 눈칫밥 얻어먹으며 머슴처럼 장성했는데, 색시로 맞았다는 것이 도시물 먹은 순덕이었다. 순덕이는 결혼한 지 한 달도 못 되어 도시로 나가 살자고 성화였다. 칠복이 내외는 광주시 산꼭대기 사글세방으로 밀려가 도시 생활을 한다. 순덕이는 며칠 만에 식당 주방에 취업하고, 농사일 외엔 아무 것도 할 줄 모르는 칠복은 면목 없이 아내의 수입으로 먹고 살다가 광주시 인근 장성읍에 나가 농사 품을 팔며 20만 원을 벌여 집으로 돌아온다. 일부러 아내를 놀라게 해 주려고 소리 안 나게 집으로 들어가 불을 켜는 순간, 순덕이가 웬 놈하고 별거벗고 누워 있는 현장을 발견한다. 칠복이 식칼을 들고 방으로 들어섰을 때엔 두 년놈은 벌써 출행량을 놓은 뒤였다. 거지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온 칠복은 징을 애지중지하며 잘 때도 꼭 베고 잔다. 마을 사람들은 징을 빼앗아 보기도 했으나, 칠복이는 살기(살기(殺氣))를 보이며 제징을 지킨다. 주민들은 칠복을 내쫓기로 하고 억지로 칠복이 부녀를 읍으로 들어가는 버스에 태운다. 칠복의 친구인 봉구는 칠복에게 이천 원을 질러주며 다시는 오지 말라고 한다. 빗방울이 굵어지는데, 봉구의 귀엔 바람 소리인지 징 소리인지 모를 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려 온다. 마을 사람들도 그 귀기(귀기(鬼氣)) 서린 징 소리에 몸을 떨며 잠을 뒤척인다.

※ 등장인물 소개

- 칠복: 외가에서 머슴처럼 살다가, 순덕이와 결혼, 자갈논을 부치며 살아가다 장성댐이 건설되어 마을이 수몰되자 보상도 못 받고 광주로 밀려 들어와 낮선 도시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아내에게마저 버림받는다.
- 순덕이: 칠복의 아내. 시골 생활을 견디지 못하여 남편과 어린 두 딸을 두고 달아난다.
- 봉구: 칠복의 어렸을 적부터의 친구. 칠복의 처지를 이해하고 도와주는 편이나, 끝내 칠복을 내쫓는데 합류한다.

## ※ 내용 구조(갈등의 전개)

1. 1970년대부터 본격화된 농촌의 붕괴와 도시 빈민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사회 소설로서, 우리의 전통적 정서인 한(恨)이 현대 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변용되어 나타나는가를 진지하게 모색한 작품
2. 인간과 사회의 갈등 - 고향과 농토를 유지하려는 인간과 개발을 통해 댐을 건설하는 현실과의 갈등
3. 인간과 인간의 갈등 - 각박한 현실 속에서 뿌리 뽑힌 인간과 현실의 변화에 적응하거나 타협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인물의 갈등

## ※ 깊고 넓은 이해

1. 등장 인물들의 두 가지 유형 - 하나는 각박한 현실 속에서 뿌리 뽑혀 살아갈 수 없는 인물이며, 다른 하나는 부조리한 현실과 타협하여 세속적 행복을 추구한 인물이 나타난다.
2. 주인공 허철복의 인물의 특징 - 주인공 허철복은 입체적 인물도 아니며 성격의 발전도 없는 구시대적 인물의 전형이다. 따라서 그는 지금의 부조리한 인간성 상실의 현실 속에서는 살아갈 수 없다. 즉 고향을 존재론적으로 생각하는 인물은 현대 산업 사회를 거부하며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이 작품은 고도의 산업화 과정 속에서 전통 사회가 어떻게 무너지고 그 속에서 민중들은 어떠한 고통을 겪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다.

## ★ <징소리>의 의미

이 소설은 산업화로 인한 고향 상실감에 따른 한과 비애는 무척 깊이 있고 여운이 길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징소리와 공통적 속성을 지닌다. 더 나아가 징소리는 댐 건설로 인해 고향을 잃어 버린 방울재 사람들의 혼의 울음으로 볼 수 있으며, 인간다움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다시 고향을 일깨우는 깨우침의 소리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징소리는 결국 고향을 인간의 참다운 존재 양식을 이룰 수 있는 곳으로 파악하고,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공동체적 이상을 갈구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즉 징소리는 비인간화된 사회에서 인간성 회복을 바라는 처절한 절규인 것이다.

TIP. 이 작품은 자아(징소리(고향, 철복) 울림)와 세계(봉구 덕칠, 강촌영감, 장성 댐의 물)가 서로 갈등을 벌이지만 그것이 파국으로 끝나지 않는다. 징소리는 현실의 통환을 삭이는 과거의 순수하고 행복했던 삶을 반추하는 울림으로, 실향민들이 정체성을 갖게 하는 화해의 소리로 상징되어 있다.

## ※ 마지막 부분의 의미

마지막 부분에서 방울재 사람들이 징소리로 인해 잠을 잘 수 없었던 이유가 징소리는 자기 고향을 두고 도회지로 나온 철복이에게 근원적인 향수, 그리고 인간다움의 회복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한다. 철복이는 고향을 떠났으면서도 징을 항상 가까이하면서 결국 고향을 잊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 ※ 철복이가 고향에서 쫓겨난 것에 담긴 의미

장성댐이 축조된 이후 방울재에 남아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매운탕집으로 생계를 잇는다. 그들은 댐 근처에서 징을 치는 철복이의 행위가 자신들의 영업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철복이를 마을에서 쫓아내기로 결정한 것이다. 댐 건설이 마을 주민들 간의 연대 의식마저 파괴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대목이다.

## ※ 작품 정리

- 갈래: 단편소설, 연작소설
- 배경: 시간-1970년대 / 공간-전남 장성호 수몰 마을
- 경향: 사회 고발적
- 시점: 3인칭 전지적 시점
- 표현: 주로 서술에 의지함. 인물 묘사는 간접적인 방법이 위주(말하기)
- 주제: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농촌과 농촌 출신 도시 빈민들이 고달픈 삶

(다) 방울재 허칠복(許七福)이가 고향을 떠난 지 삼 년 만에 미처서 돌아와 짐을 두들기며 댐을 막은 뒤부터 밀려드는 낚시꾼들을 쫓아 댔다. 고향 회복 의지 당실당실 춤을 추며 짐을 두들기는 칠복이의 모습은 나무랄 을 쓴 도깨비 같다고들 했다.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 그리고 그가 그렇게 된 것은 고향을 잃은 서러움, 아내를 빼앗긴 원한 때문이라고들 했다. 수몰민으로 고향을 잃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었던 칠복의 삶

(중략)

“마누라 뺏기고 원, 찡피해서 지랄한다고 고향엔 와요?”

“그러다마다유. 하지만, 오죽했으면 고향에 뭐 볼 거 있다고 다시 왔겠남유? 결국 우리덜도 도회지에 나갔다가 밭을 못 붙이고 다시 돌아와서 이르게 낚시꾼들 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요, 으디 갈 데가 있어야지유. 굶어 죽어도 고향 선산에 뼈를 묻어야겠다는 생각 땀시…….” 고향에 대한 애착

봉구는 푸우 한숨 섞인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①멀고 회화에 가득한 눈으로 사자락 모퉁이 옛날 창평 고씨(昌平高氏) 제각이 있던, 편편한 곳에 즐비하게 늘어선 매운탕집 주막들을 바라보았다. 옛날 고향의 마을이 모조리 사라져버리고 관광객들의 터전으로 달라진 고향 마을 풍경을 바라봄

지난봄까지만 해도 선산을 버리고는 죽어도 방울재를 떠나지 않겠다고 처음부터 집을 뜯어 옮기고 그대로 눌러앉은 박팔만이네를 제하고, 다섯 집밖에 안 되었는데 ②벌써 열한 집으로 늘어났다. 고향을 서서히 등지고 있는 사람들

새로 생긴 방울재 매운탕집들 앞으로는 아카시아 숲이 휘음하게 울타리처럼 둘러쳐져 있고, 아카시아 숲 너머로는 호남 고속 도로와 연결되는 좁장한 신작로가 뻗쳐 들어오고, 그 길을 따라 낚시꾼들이 타고 온 자가용들이 집 둘레 여기저기에 번쩍번쩍 햇빛을 쪼개어 날렸다. 봉구의 눈에는 모든 것이 슬프고 어쭙잡게만 보였다.

말이 보상금이지, 보상 가격을 책정해 놓고도 일이 년 뒤에야 지불을 받고 보니, 이미 인근 농토값은 몇 배로 뛰어올라 ③대토(代土) 잡기에 어려웠고, 도회지로 나가서 살자 해도 전세방을 얻고 나면 도시 땅값은 더 비싸서 어려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발만 동동 구르는 동안 자전거 하나 사기도 힘든지라, 아무 것도 못 하고 술래술래 꾀감 꼬치 빼먹듯 하다가는 두 손바닥 탈 탈 털고 영락없이 알거지가 되고 만 집이 어디 한두 사람인가. 돈이 조금씩 사라지고 말았다는

봉구 그 자신도 보상금 받아 가지고 읍에 나가서 버스 정류장 옆에 가게를 열어 쌀집을 냈으나 어찌 된 셈인지 남는 것은 없고 옴니암니 본전만 까먹게 되어 전셋돈이나마 가까스로 건져 다시 방울재로 돌아오지 않았는가.

“지붕 위에서 낚시질을 한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이상합니다.” 예전 집이 있는 곳을 물로 채워 댐으로 만든 것

빨간 모자 낚시꾼은 두뼉두뼉 곧잘 말을 걸어왔다.

“사람들겨정 한꺼번에 쟈겨 뿐 거이 더 마음 아프구면유.”

“누가 빠져 죽었나요?”

“죽은 거나 매한가지라유. 수십 년 동안 얼굴 맞대고 정 붙이고 살아온 방울재 사람들을 시방 어디에 고향 상실의 비극 가서 찾을 겁니까유. 살아남은 사람들은 몇 집 안 되지라유.”

“예끼 여보슈, 난 또 무슨 소리라구!”

“선생님들은 우리 속 몰라유.” 고향에 대한 귀향 의식을 가질 수 없는 상황 “땀이 원망스럽겠군요.”

“으째서유?”

“고향을 삼켜 버렸으니까요.”

“@워디가유. 아무리 배우지 못했어도 우리가 그러키 앞뒤 꼭 맥힌 멍충이들이란가유? 땀이 생겨서 많은 농민덜이 가름 모르고 농사 잘 짓는 거이 올때나 잘한 일인가유? 우리도 그 정도는 압니다유.” 댐의 가치와 효용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음 “그렇다면 됐습니다.”

“그래도 고향이 없어서 뿔고 정든 사람덜이 뿔뿔이 풍지박산되야 뽕졌는디 으찌.”

“딱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뿌리 없는 나무여러우 우리헌터 땅이 있소, 기술이 있소?” 고향을 잃어버린 수몰민들을 단적으로 일컫는 말

빨간 모자가 대꾸를 해 주지 않자, 봉구는 고개를 들어 다시 매운탕집들 위로 내리뻗은 고속 도로를 바라 보았다. @자동차들이 바람처럼 썩썩 내달았다.

-문순태, 「정 소리」

갈래	단편소설, 연작소설
성격	사회고발적, 비판적
제재	수몰민들의 삶
주제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농촌과 농촌 출신 도시 빈민들의 고달픈 삶
특징	- 고향 상실의 아픔과 절규가 정소리의 격렬한 청각 영상으로 표상됨 - 날씨와 같은 배경 묘사가 작품의 분위기 형성에 기여함



☆ 포인트 1 : '징 소리'는 근대화의 이면에서 희생당한 사람들의 고통을 상징함

포인트 2 : 행을 '치는 자'와 '듣는 자'는 대립 관계가 아닌 공동체임

